

# 退溪에 있어서 <太極圖>와 <天命新圖>의 해석과 상관성\*\*

琴 章 泰\*

• 目 次 •

I. 문제의 제기	3) <天命圖>의 쟁점
II. <太極圖>에 관한 퇴계의 이해	IV. <太極圖>와 <天命圖>의 비교분석
III. <天命新圖>를 둘러싼 退溪의 인식과 當代 道學의 쟁점	1) 圖象의 구조와 概念의 비교
1) <天命圖>의 訂正과정	2) 性理學的 概念의 一致관계
2)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命圖>의 비교분석	3) 修養論的 실천 方法의 相應性
	V. 한국유학사에서 <太極圖>와 <天命圖>의 위치

## I. 문제의 제기

조선 시대 성리학의 탁월한 석학인 退溪 李滉의 대표작인 《聖學十圖》는 道의 本體論과 爲學論·心性論·修養論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道學의 전체 규모를 10개의 圖와 說로 구성하여 가장 압축적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이러한 집약은 그의 博通한 학문적 축적을 토대로 한 것이며, 또한 이렇게 집약하는 학문 방법은 한국사상사의 한 특징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sup>1)</sup> 특히 ‘圖’ 혹은 ‘圖說’의 형식은 변쇄한 이론의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이 논문은 14차 퇴계학 국제학술대회(1995) 발표논문임.

1) 新羅의 元曉는 많은 佛經연구에서 <華嚴經宗要>·<法華經宗要> 등 ‘宗要’

복잡한 뒤엎힘을 가장 간명한 형식으로 그 핵심과 근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한국유학사에서 매우 중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圖’중시의 학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퇴계의 《聖學十圖》라 할 수 있다.

權近의 《入學圖說》이나 鄭之雲의 《天命圖》 등 퇴계의 《聖學十圖》에 선행하는 ‘圖’들이 있었지만, 《聖學十圖》에 관한 토론은 퇴계의 당시에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사실이나, 이에 자극을 받아 그 이후의 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그 영향 아래 새로운 ‘圖’들이 무수히 제시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聖學十圖》의 第1 <太極圖>에는 ‘太極圖’와 ‘圖說’이 수록되어 있다. 그것은 성리학의 교과서적 문헌인 《近思錄》이나, 성리학을 집대성한 《性理大全》에서 이미 그 가장 첫머리에 道體의 문제로 <太極圖>를 수록하고 있는 학문 체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周濂溪의 <太極圖>는 우주의 궁극 존재 개념과 우주 생성의 기본 원리를 제시해 줌으로써, 宋代 性理學의 發源이 되는 것이며, 한국 성리학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성리학의 전통에서 <太極圖說>로부터 뚜렷하게 영향을 받은 저술로서는 權近의 《入學圖說》(1390)에 수록된 <天人心性合一之圖>와 鄭之雲이 처음에 지은 <天命圖>(舊圖) 및 이를 수정한 퇴계의 <天命新圖>를 들 수 있다. 곧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命圖>는 양쪽 모두 <太極圖>를 기준으로 삼으며 아울러 《中庸章句》의 핵심 사상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太極圖>가 우주론적 논리를 제시한 데 비하여 天과 人 내지 天命과 心性을 통합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심성론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天命新圖>에서 퇴계가 추구한

---

의 형태로 저술하였고, 義湘도 <華嚴一乘法界圖>를 그려 7言 30句 210字로 華嚴의 廣大한 세계를 集約시키고 있으며, 퇴계가 <朱子書節要>를 편찬하였던 ‘節要’의 형식이나, 栗谷 李珥가 《聖學輯要》를 편찬하였던 ‘輯要’의 형식, 및 正祖大王때 활발히 편찬하였던 여러 고전의 ‘百選’ 등도 集約을 중시하는 학풍을 보여준다.

- 2) 琴章泰, <聖學十圖註釋과 朝鮮後期退溪學의 展開>, 《退溪學報》 48, 退溪學會, 1985, 참조.

<太極圖>의 계승과 변혁의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周濂溪에서 시작되고 朱子에 의해 집대성되는 宋代철학이 우주론에서 출발하였다면, 이 宋代哲學을 수용하였던 조선시대 철학에서는 인간학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곧 宋代道學으로부터 조선시대 도학으로 전이하는 그 중심축의 징표는 인간의 심성에 철학적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근원으로서 天(天命·理·太極)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바로 權近의 <天人心性合一之圖>에서 발단하고 퇴계의 <天命新圖>에 이르러 완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성리학의 쟁점들은 바로 이 심성론의 문제와 그 근원으로서 天命-理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일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퇴계의 <太極圖>에 대한 이해와 <天命新圖>의 인식을 대비시켜 분석해 보면, 한국 성리학이 중국성리학과 구별되는 문제의식의 특성과 그 심화된 이론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太極圖>에 관한 퇴계의 이해

퇴계는 《聖學十圖》의 第1 <太極圖>에는 周濂溪의 ‘太極圖’와 ‘圖說’ 다음에 ‘所引’과 ‘附說’이 붙어 있다. ‘所引’은 朱子의 언설을 인용하여 <太極圖說>의 뜻을 부연 설명한 부분이며, ‘附說’은 퇴계가 인용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붙인 것이다.

먼저 ‘附說’에서는 <太極圖說>에 대한 朱子의 평가로서, “도리의 중대한 두뇌가 되는 자리요, 백세토록 도술의 연원이다.”(是道理大頭腦處, 又以爲百世道術淵源) 라고 한 언명을 인용하여, <太極圖說>이 원리에서 보면 모든 도리의 중추가 되며, 사상사에서 보면 어느 시대나 학문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이어서 ‘所引’에서는 <太極圖說>의 구조에 관한 주자의 언급으로, “圖說의 머리 부분에서는 陰陽 변화의 근원을 말하였고, 그 뒤로는 사

람이 부여받은 바를 밝혔다.”<sup>3)</sup>라는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太極圖說>이 ‘음양 변화의 근원’과 ‘사람이 부여받은 바’ 곧 太極과 心性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太極圖說>을 ‘하늘과 인간(天·人)의 문제로 이해하는 퇴계의 관심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는 朱子가 <太極圖說>註에서 “陰陽·動靜이 心이다.”라는 말에 근거하여, “天地의 太極이 사람에서는 곧 性이요, 天地의 動靜·陰陽이 사람에서는 곧 心이요, 天地의 金木水火土는 사람에서는 곧 仁義禮智信이요, 天地의 化生萬物은 사람에서는 곧 萬事이다.”<sup>4)</sup>라 하여, 天·人의 상응구조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所引’에서 朱子를 인용하여, “聖人是 수양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되지만,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여 수양을 하므로 군자가 길하게 된다. 이것을 알지 못하여 어그러지니 소인은 凶하다.”<sup>5)</sup>라 한 것은, <太極圖說>에서 “군자는 이를 닦아 길하고 소인은 이를 어그러지게 하여 흉하다.”(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다. 이 해석의 초점은 ‘닦는다’(修)는 수양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다. <太極圖說>이 내포하고 있는 天·人의 구조에서 특히 ‘人’은 다시 기본 구성요소인 ‘形·神’의 문제와 五性の 感動에 따른 ‘善·惡’의 문제가 있고, 聖人·君子·小人의 인격적 품계의 차별에 따라 ‘수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퇴계가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준 것은 바로 ‘수양’의 문제이다.

퇴계는 朱子の 언설에서 특히 수양의 문제에 주목하여 ‘敬’의 개념을 끌어내고 있다. 곧 “수양하느냐 어기느냐는 공경함(敬)과 방자함(肆)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敬하면 욕심이 적어지고(寡慾) 이치가 밝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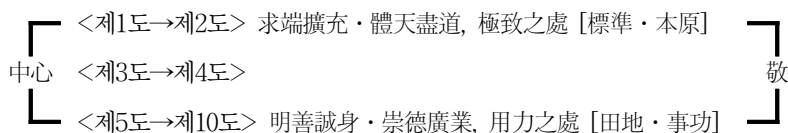
3) 《朱子語類》 권94, ‘周子書’, “朱子曰, 圖說首言陰陽變化之原, 其後則以人稟受明之.”

4) 《退溪全書》 권22, 5, ‘答李剛而(楨) 別紙’, “天地之太極, 在人便是性, 天地之動靜陰陽, 在人便是心, 天地之金木水火土, 在人便是仁義禮智信, 天地之化生萬物, 在人便是萬事.”

5) 《性理大全》 <太極圖說>註, “聖人不修爲而自然也, 未至此而修之, 君子之所以吉也, 不知此而悖之, 小人之所以凶也.”

(理明). 적게 하고 또 적게 해서 없는 데까지 이르면, 靜할 때는 虛하고 動할 때는 直하게 되니, 聖人을 배울 수 있다.”<sup>6)</sup> 수양은 곧 敬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퇴계는 <太極圖說>에서 우주의 생성과정과 인간의 존재 양상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서 수양(敬)의 문제를 표출하고, 朱子の 말을 빌어 자신의 철학적 중심 과제요 <聖學十圖>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로서 ‘敬’의 수양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太極圖說>에서 周濂溪는 ‘靜’(無欲故靜)을 말하고 ‘敬’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朱子는 이에 ‘敬’으로 보완하였던 사실에서 <太極圖說>의 해석에서 ‘敬’의 문제는 이미 朱子가 지적한 바 있다.

곧 <聖學十圖> 第4 <大學圖> 끝에 붙인 ‘附說’에서는 제3 <小學圖>와 제4 <大學圖>를 중심으로 보고 이 2圖의 說만 通看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8圖(上2圖와 下6圖)를 중심의 2圖와 通看하도록 요구한다. 곧 그는 “위의 2圖는 ‘단서를 찾아 확충하고 天을 체득하여 道를 다하는 극치의 곳’으로서, 소학·대학의 표준·본원이 되고, 아래 6도는 ‘明善·誠身과 崇德·廣業을 힘쓰는 곳’으로 소학·대학이 田地·事功이 되는 것이다.” 라 하여, <太極圖>와 <西銘圖>가 중심 2도인 <小學圖>와 <大學圖>의 敬을 실천하는 표준이요, 敬이 가능할 수 있는 본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10圖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圖示할 수 있다.



나아가 敬은 표준이 되는 형이상의 세계와 田地가 되는 형이하의 세계에 모두 疏通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敬을 위한 노력을 착수(着工)하고, 그 실천을 통한 효과를 거두어들임(收效)에 있어서 10圖의 전체를

6) 같은 곳, “修之悖之, 亦在乎敬肆之間而已矣, 敬則欲寡而理明, 寡之又寡, 以至於無, 則靜虛動直, 而聖可學矣.”

모두 중사하여 잃지 말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그는 이미 <太極圖說>에서 ‘敬’개념을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聖學十圖》의 전체가 敬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 역설한다.<sup>7)</sup>

그 밖에도 퇴계는 문인들과 문답하면서 <太極圖說>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李德弘이 <太極圖說>의 첫장과 끝장을 動靜과 先後로 이해하자, 퇴계는 “한번 動하고 한번 靜함이 서로 뿌리가 된다.”(一動一靜, 互爲其根)는 구절의 의미를 “陰·陽의 氣가 運行하여 消長하고 交易하며 變易하는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sup>8)</sup>라 하여, 動靜하고 變化하는 순환 현상으로 파악함으로써, 動靜과 先後로 구별하여 볼 수 없음을 확인한다. 나아가 그는 高峯 奇大升과 四端七情의 문제로 논쟁을 벌이면서, 奇大升이 퇴계의 기본 입장을 분석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고, 퇴계가 사용하는 虛나 無가 불교나 老莊과 혼동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을 때, 그는 <太極圖>에서 太極圈을 陰陽의 위에 두는 사실이나, 太極圈이 있음에도 陰陽의 가운데 太極을 두고 있는 사실과, 陰陽의 아래에 五行圈을 두고 있는 것이 분석의 논리임을 引證하여 분석의 이원론적 사유가 정당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쓰는 ‘虛’나 ‘無’의 개념이 ‘虛이면서 實이요, 無이면서 有’(虛而實, 無而有)라 하여, 周濂溪의 ‘무극이면서 태극’(無極而太極)이라는 명제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있다.<sup>9)</sup>

7) 《退溪全書》 권7, 20, <聖學十圖>, “敬者, 徹上徹下, 著工收效, 皆常從事而勿失者也...今茲十圖, 皆以敬爲主焉.”

8) 같은 책, 권35, 23, “??李宏仲(?) 別紙”, “太極圖說所謂, 一動一靜互爲其根者, 指陰陽之氣運行消長交易變易處言, 故曰無先後之可言耳.”

9) 같은 책, 권16, 41-42, ‘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 改本, 後論’, “若爲不知者, 而慮其分析之弊, 則濂溪之圖, 不應挑出太極圈在陰陽之上矣, 其有在上之太極, 不應復有在中之太極矣, 五行之圈, 又不應置在陰陽之下矣... 吾所謂虛, 虛而實, 非彼之虛, 吾所謂無, 無而有, 非彼之無, 何必過憂於異端之歸乎.”

### Ⅲ. <天命新圖>를 둘러싼 退溪의 認識과 當代 道學의 爭點

<天命圖>와 이에 따른 ‘圖解’ 내지 ‘圖說’은 그 성립 과정과 판본에 따른 차이가 다양하여 복잡한 고증적 문제점이 남는다. 판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天命圖>의 종류는 12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sup>10)</sup> 그 12가지 가운데 퇴계가 수정한 것으로서 <天命新圖>는 6가지 있고, 다시 그 6가지 新圖 가운데 《退溪全書》에 실려 있는 것이 최종의 完定된 圖라 할 수 있다.<sup>11)</sup> <天命圖>의 作圖者는 舊圖를 그린 경우 鄭之雲과 金麟厚가 있고, 新圖를 그린 경우 退溪와 奇大升이 있다. 아울러 鄭之雲의 舊圖와 退溪의 新圖는 각각 정정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舊圖와 新圖는 각각 서로 상대방의 존재에 견주어 자기 圖의 성격과의

- 10) <天命圖>의 板本에 따른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한 研究로는 柳正東教授의 <天命圖說考>와 <天命圖說에 관한 연구>가 있다. 柳正東, 《東洋哲學의 基礎的 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6. <天命圖>의 板本別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作 者	題 名	作圖	板 本	刊年	別 稱	備 考	
1	鄭之雲	天命圖	1543	天命圖解	1578	秋巒原圖	跋(1640, 澤堂 李植)	
2	金麟厚	天命圖	1549	天命圖解	1578	河西天命		
3	鄭之雲	天命舊圖	15??	退溪全書	1600	全書舊圖		
4	鄭之雲	天命舊圖	15??	天命圖說	1640	圖說舊圖		
5	李 滉	天命舊圖	15??	秋巒實記		實記舊圖		
6	李 滉	天命新圖	1553	天命圖說	1578	圖說訂正		△
7	李 滉	天命新圖	15??	退溪全書	1600	全書新圖		▲
8	李 滉	天命新圖	1553	天命圖說	1640	圖說新圖		▲
9	李 滉	天命新圖	1553	秋巒實記		實記新圖		△
10	李 滉	天命新圖	15??	秋巒實記		實記訂正圖		▲
11	李 滉	天命圖	15??	高峯集	1629	高峯天命圖		▲
12	奇大升	擬定天命圖	15??	高峯集	1629	高峯擬定圖		

\* △ 또는 ▲ 표한 것은 같은 표기리 同一함을 나타낸다.

\* 《退溪全書》(1600)와 《陶山全書》(1869)의 <天命新舊圖>는 동일하다

- 11) 《退溪全書》의 新圖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天命圖說》·《秋巒實記》·《高峯集》에 실려 있는 新圖는 이와 동일하고, 《天命圖說》·《秋巒實記》에 수록된 新圖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퇴계가 수정한 新圖의 초기 형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리를 확인하고 있다.

### 1) <天命圖>의 訂正과정

舊圖로부터 新圖로 訂正하는 과정에 드러난 가장 특징적인 차이를 들어보면 다음의 세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1) 圖의 上下 방위문제로서, 天圓의 둘레에 12방위를 표시하였는데, 秋巒原圖 및 河西天命圖에서는 위를 午 아래를 子로 놓았지만, 舊圖 및 新圖에서는 子·午의 상하가 뒤바뀌었다. 子·午가 바뀌면 이에 따라 子에서 天命이 心性으로 내려 뺄는 방향도 바뀌게 된다. 그것은 圖를 바라보는 위치가 바뀐 것으로 新圖는 圖를 위에 놓고 사람이 아래서 위로 圖를 바라보는 위치를 의미하며, 이처럼 위치를 바꾼 것은 天命을 받는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天命의 이해문제로서, 《退溪全書》의 舊圖에서 新圖로 넘어오는 수정사항은 첫째 舊圖에서 天命을 理·氣가 차례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新圖에서는 天命을 ‘理氣妙應’이라 표시하였다. 그것은 理·氣를 내외로 구분시켜 이원적으로 이해하는 鄭之雲의 입장을 퇴계가 수정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舊圖에서는 人(直立)·禽獸(橫生)·草木(逆生)의 존재양상에 대해 天命에서 각각으로 통하는 통로를 白線(理)과 黑線(氣)으로 표시하였는데, 新圖에서는 이 통로들을 모두 제거하고 天命을 方形(地方)위에 圓으로 그려 天命圈을 독립시키고 人·禽獸·草木의 속에 각각 한 圓을 그려 넣고 그 圓 안에 ‘性’字를 直·橫·逆으로 적어 넣었다. 그것은 天命과 性이 圓으로 표상되는 동일한 본질임을 보여주면서도, 그 위치에서는 上下로 구별하고 그 상태에서는 直·橫·逆임을 보여주었다.

(3) 四七問題로서, 舊圖에는 人形圈(頭圓足方)안의 性圈 아래에 있는 情圈 左右에 ‘四端發於理’·‘七情發於氣’라 적어 넣었다. 新圖에서는 이 구절을 ‘四端理之發’·‘七情氣之發’로 고쳤으며, 여기서 高峯 奇大升은 舊圖의 正義는 물론이요, 新圖에서 보인 퇴계의 수정조차도 理氣를 이



원론적으로 분별한 것이라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조선시대 성리학사의 일대 쟁점이 되었던 ‘四端七情論爭’(四七論爭)으로 전개되었다.<sup>12)</sup>

## 2)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命圖>의 比較分析

이 <天命圖>가 鄭之雲에 의해 처음으로 창안된 것인가, 혹은 陽村權近의 <天人心性合一之圖>(以下 ‘合一圖’로 略記한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가의 문제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合一圖>와 <天命圖>는 <太極圖說>과 <中庸>을 토대로 삼은 점에서는 같지만, <合一圖>와 <天命圖> 사이에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또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圖象의 전체적 구조를 보면 <合一圖>는 天(圓形)과 氣質(方形)을 上·下로 구성하고, 그 사이에 연결 통로를 설정하여 ‘命’ 내지 ‘理의 根源’으로 제시하였다. 氣質 속의 ‘心’에는 ‘意’와 ‘情’이 左·右의 끝에 위치하여, 右의 ‘情’의 아래로 善으로서 ‘四端’圈과 ‘誠’(聖人性之)圈과 ‘聖人’(與天同大)圈이 白色의 3段으로 흘러내리는 모양이요, 左의 ‘意’ 아래로 惡으로서 ‘殘忍·貪昌·嗜欲·昏罔’圈과 ‘欲’(衆人害之)圈과 ‘禽獸皆橫’圈이 黑色의 3段으로 흘러내리는 모양을 보여준다. 左右로 3段의 두 줄기 사이에 ‘敬’(君子修之)圈이 있어서 ‘殘忍·貪昌...’圈과 ‘聖人’圈 및 ‘四端’圈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고, 또한 ‘四端’과 ‘欲’ 사이에 직접 연결통로가 있다.

이에 비해 <天命圖>(新圖)를 보면 天圓의 속에 地方이 내접하는 黑色의 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天圓과 地方 사이의 빈 공간에는 작은 圓의 ‘天命’圈이 天圓과 地方 사이에 상하로 접하고 있는 형태이다. 黑色의 地方 속에 頭圓足方의 白色 공간이 人形이고, 人形은 ‘性’圈과 ‘情’圈의 두 圓이 上下로 놓여 있고, 그 사이의 연결통로는 情과 意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地方 안에는 右下에 ‘禽獸橫生’圈이 있고 左下에 ‘草木逆生’圈이 있다.

12) 民族과 思想研究會 編, 《四端七情論》, 曙光社, 1992, 參照.

이 두 圖 사이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서로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天·地 내지 天·人의 기본 구조에서 보면, 두 圖는 天과 地方(氣質)을 上·下로 배치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이나, <合一圖>에서 上·下 사이에 命의 통로를 설정하지만, <天命圖>(新圖)에서는 통로를 두지 않음으로써 天命과 性의 位가 다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天命圖>에서는 天(天圓)과 地(地方)가 내외로 배치되어 있어서 天命과 地方 사이의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天이 地를 포섭하는 관계를 제시하여 天과 地(人) 사이에 상하구조와 내외구조의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2) 心개념의 이해를 보면, 두 圖에서 '性이 發하여 情이 된다.'(性發爲情)는 명제의 인식은 공통되지만, <合一圖>는 '心'에서 '性'을 중심으로 '情'(東)과 '意'(西)이 좌우로 대응되고 있는데, <天命圖>에서는 人形圈 안에 性과 情이 상하로 배열되고 있고, 그 사이의 통로에 情과 意가 함께 들어 있다는 배치 구조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3) 四端·七情의 문제를 보면, <合一圖>에서는 七情을 '心'字 속에 두고 四端은 '情'圈에 두고 있지만, <天命圖>에서는 性圈에 四端이 情圈에 七情이 있어서 上下로 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四七論의 이해에서 각각의 견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곧 '情-四端 / 心-七情'이라는 權近의 견해는 四端도 情이라는 이해를 전제로 四端이 情과 더불어 性에 근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性-四端 / 情-七情'이라는 퇴계의 견해는 四·七을 性·情으로 배당시켜 四端이 性에 근원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원을 밝히는데 치중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四端과 七情이 서로 소통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互發說의 논리 위에 있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보여준다.

위의 비교를 통하여 <合一圖>와 <天命圖>는 배치의 고저에서는 여러 곳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개념을 매우 일치된 의식 속에 다루고 있는 공통성을 본다면 외형적 차이를 넘어 내

용적 공통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鄭之雲은 <天命圖>를 작성하는 처음에 權近의 <合一圖>를 숙지하고 있었으며 <合一圖>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天命圖>가 <合一圖>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17세기초에서도 상당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澤堂 李植은 <天命圖>가 鄭之雲이 자작한 것이 아니라 스승인 慕齋 金安國과 思齋 金正國의 설이요, 더 나아가서 周濂溪의 <太極圖>와, 邵康節의 <先天圖>와, 趙致道の <誠幾圖>와, 程子の <見心學圖>에서 나와 퇴계와 절충하여 종합한 것이라 한다. 따라서 李植은 <天命圖>가 陽村 <天人心性合一之圖>의 나머지(緒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를 강력히 부정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러나 사실상 權近과 鄭之雲 및 退溪 사이에는 四七의 理氣互發說을 비롯하여 心統性情說·修養論의 문제에서 매우 깊은 친밀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天命圖>는 <太極圖>에 근원을 두고 있는 동시에 <合一圖>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조선초기 성리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 3) <天命圖>의 爭點

<天命圖>의 인간 심성에 대한 이해는 많은 논쟁의 자료가 되고 있다. (1). 人物性同異論의 문제이다. 地方 속에는 ‘性’이 인간의 直立한 性과, 禽獸의 橫으로 표시한 性과, 草木의 倒立한 性의 3가지 형태가 있다. 그것은 같은 天命을 받은 性이지만 인간과 금수와 초목에 따라 性의 상태가 다른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간의 性에는 仁·義·禮·智가 들어 있지만, 禽獸와 草木에는 표시가 없다. 바로 이러한 性 개념은 17~18세기에 한국성리학의 중요한 논쟁으로 발전된 人物性同異論爭(湖洛論爭)의 관점에서 보면 人物性相異論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

13) 李植, ‘天命圖說跋’, 《天命圖說》 18, “仍念此圖說, 非處士(鄭之雲)所自作, 乃慕齋思齋兩先生之說, 非兩先生之說, 乃濂溪太極, 康節先天, 趙致道誠幾, 程子見心學等圖說也, 又折衷於退溪先生, 蓋合一而一之...至於此圖爲出於陽村緒餘, 吁豈其然乎.”

14) 李丙燾, <權陽村의 入學圖說에 關하여>, 《東洋學報》, 1929.

혀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心性情의 관계 문제이다. <天命圖>에는 人形의 속에 性과 情의 2圓을 통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性發爲情’의 명제에 따라 情이 性에서 발동되어 나온 것으로 性이 體가 되고 情이 用이 됨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 性圈은 心으로 쌓여 있고, 동시에 기질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心은 性과 情을 포섭하는 ‘心統性情’의 정의에 근거한 心개념이다. 이러한 心개념과 性·情의 관계 문제는 <太極圖說> 속에서 퇴계철학의 핵심적 입장을 제시한 第六 <心統性情圖>를 통하여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3) 四端七情論의 문제이다. 이 圖에서 四端과 七情은 모두 情圈 속에 있으며, 안쪽에 四端이 있고 바깥쪽에 七情이 있다. 이처럼 四端·七情을 같이 性에 근원하는 情의 양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第六 <心統性情圖>의 中圖에 해당하는 것이요, 바로 이 점에서 下圖가 퇴계의 기본 입장이라 인식하는 퇴계학파의 전통적 이해와는 달리, 韓末에 寒洲 李震相이 中圖가 퇴계의 근본 입장이라 지적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5)</sup>

(4) 敬의 수양론적 인식 문제이다. 性圈과 情圈의 양쪽 다 중심에는 ‘敬’을 적어 넣고 있다. 그것은 性·情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으로 문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性·情의 심성구조에 관한 인식의 窮理(知的) 작업과 병행하여 敬의 수양론적 역행(行)을 요구하는 퇴계의 학문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性圈에서 情圈으로 발동하는 ‘善幾’와 더불어 밖으로 갈라져 나가는 ‘惡幾’(四端滅息, 七情乖反)를 주목하고, 그 갈라지는 계기에 ‘省察’을 표시하여 敬의 動時활동인 省察의 자리를 밝혀 주고 있다.

15) 琴章泰, <退溪와 寒洲의 心개념--聖學十圖 제6 心統性情圖에 관한 寒洲의 解析과 관련하여>, 『退溪學報』 제54호, 退溪學研究院, 1987.

#### IV. <太極圖>와 <天命圖>의 比較 分析

퇴계가 <太極圖>와 <天命圖>를 비교한 대표적 저작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天命圖說後敍>(1553)로서 그가 <天命圖>를 정정한 뒤에 이에 따른 쟁점들을客과의 문답형식으로 해명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答申啓叔(沃)>(1562)으로서 弟子 申沃이 <天命圖>의 오류로 지적한 점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天命圖>가 朱子の 설에 따라 <太極圖>에 의거하고, 《中庸》의 大旨를 서술한 것으로서, 이 두 圖가 서로 발명하도록 한 것임을 전제로 밝히고 있다.<sup>16)</sup> 동시에 그는 이 두 圖 사이에 理推(理致의 類推)와 類例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名義나 界分(境界의 分數)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sup>17)</sup> 전반적으로 보면 퇴계는 <太極圖>와 <天命圖>을 비교하면서 특히 ‘圖象의 構造的 同異’를 분석하고, ‘성리학적 개념에서 일치와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며, ‘수양론적 실천 방법의 상응성’의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 1) 圖象의 構造와 概念의 比較

(1) 周濂溪의 <太極圖>는 5段으로 이루어졌지만 <天命圖>가 하나의 圈으로 이루어진 차이에 대해, 퇴계는 ‘오행은 하나의 陰陽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라는 명제에 따라, 渾淪하여 말하면 태극·음양·오행이 하나일 뿐이라 지적한다. 곧 <太極圖>가 分開의 관점이라면 <天命圖>는 混淪의 관점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며, 一體의 兩面的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두 圖가 각각 5段과 1圈으로 구성됨으로써 주장하는 바의 차이

16) 《退全》 권41, 3, <天命圖說後敍>, “今是圖(天命圖)也, 不過用朱子說, 據太極之本圖, 述中庸之大旨, 欲其因顯而知微, 相發而易曉.”

17) 《退全》 권38, 22, <答申啓叔(沃)>, “此圖與太極圖, 理推類例, 雖同, 而名義界分, 則有不同者.”

가 있음을 주목한다. 퇴계에 의하면 <太極圖>는 ‘理와 氣의 本原을 천명하고 造化의 機妙를 발명’한 것이므로, 5段으로 만들어야만 사람들을 제대로 깨우칠 수가 있다고 지적하며, <天命圖>는 “사람과 사물의 稟賦에 근거하고 理·氣의 化生에 근원한다.”<sup>18)</sup>라 하여, 습一시키지 않으면 제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해명한다. 곧 <太極圖>는 ‘理·氣의 本原’(本體)이라는 우주론의 문제를 밝히는 것이라면, <天命圖>는 ‘人·物의 稟賦’(性)라는 심성론의 문제를 밝힌다는 것이다.

(2) 퇴계는 <太極圖>와 <天命圖>의 두 圖 사이에 개념적 일치성과 차이점을 밝혀, 상응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두 圖의 일치성으로 확인되는 사례의 하나는 <태극도>의 둘째 段(陰靜陽動)에서 ‘陰 속에 陽이 있고(陰中有陽) 陽 속에 陰이 있다(陽中有陰).’는 사실과, <天命圖>의 天圓에 陰과 陽의 消長이 있는데 陰의 消滅過程(子에서 午까지)은 陽中陰이 되고, 陽의 소멸과정(午에서 子까지)은 陰中陽이 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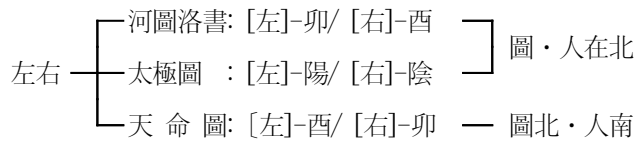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퇴계는 河圖와 <太極圖>는 對待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主가 되는 것 속에 客을 포함하고 있지만, <天命圖>는 運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때에 맞는 것’이 속에 있고 ‘성공한 것’이 겉에 있다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sup>19)</sup> 또 하나의 증거로서 <天命圖>의 元·亨·利·貞은 <太極圖說>의 ‘五行之性’에 해당하고, <天命圖>의 地의 形과 人·物의 形은 <太極圖說>에서 ‘眞(太極)精(陰陽·五行)妙合’, ‘成男成女’,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의 구절들이 人·物을 가리키며, 地도 物의 하나임을 지적하여 두 圖가 상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太極圖>와 <天命圖>가 방위에서 乾坤·좌우의 방위가 다른 것은 天地의 방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圖와 觀者 사이에 賓·主의 차

18) 《退全》 권41, 3-4, <天命圖說後敍>, “濂溪闡理氣之本原, 發造化之機妙, 不分爲五, 無以曉人, 是圖因人物之稟賦, 原理氣之化生, 不合爲一, 不成位置.”

19) 《退全》 권41, 4, <天命圖說後敍>, “但彼主於對待, 故包客在主之中, 此主於運行, 故當時者在裏, 成功者在表, 其實一也.”

이가 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sup>20)</sup> 곧 모든 圖는 北이 主가 되는데, 河圖·洛書와 <太極圖>는 觀者도 北으로부터 主를 따라 圖를 보고 있어서 圖와 사람이 賓·主의 분별이 없으므로 先後·좌우와 동서·남북의 방위가 바뀌지 않으나, 이에 비해 <天命圖>의 경우 圖는 主가 되어 北에 있고, 觀者는 賓이 되어 南에 있어서, 賓의 입장에서 主를 향하여 南으로부터 北을 보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4) 퇴계는 河圖·洛書는 下에서 시작하고, <太極圖>와 <天命圖>는 上에서 시작하여 上·下가 뒤바뀐 이유를 명석하게 해명하였다. 곧 모든 圖는 北에서 南을 향하는 것을 기준으로 先後·좌우를 나누는데, 陽氣가 처음 下에서 생겨나 점점 자라서 上에서 極에 이르고, 北方은 陽氣가 처음 생겨나는 곳이므로 後(子)를 下로 삼고, 前(午)을 上으로 삼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河圖·洛書는 陰·陽의 消長을 주로 하므로, 陽을 중요시하여 下(北)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河圖·洛書가 北을 下로 삼는 것은 北이 下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氣가 下로부터 上으로 올라가는데 근거한 것임을 지적한다.<sup>21)</sup> 그러나 <太極圖>와 <天命圖>는 근원의 理·氣가 조화의 기틀을 發하여 上天이 만물에 명하는 道이므로, 上(北)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퇴계는 下에서 시작하는 鄭之雲의 <天命原圖>를 수정하여 上에서 시작하도록 上下를 바꾸었던 것이다.

20) 《退全》 권41, 5, <天命圖說後敘>, “非方位之易置也, 第因觀者之於圖, 有賓主之異耳.”

21) 《退全》 권41, 7, <天命圖說後敘>, “從來圖書以北爲下者, 北非下也, 由氣之從下升上而言耳.”

上下 [ 河圖洛書: 陰陽‘消長’爲主·陽爲重 —始於[下]  
 太極圖·天命圖: 原理氣·發化機·上天‘命物’之道 —始於[上]

퇴계는 <太極圖>에서 第3段인 無極(眞)과 二五(精)가 妙凝한 圈이 <天命圖>에서 天命의 圈에 해당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太極圖>의 太極圈과 陰陽圈은 <天命圖>에서 天圓에 해당하는 것이요, 나아가 두 圖의 상응 관계가 모든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퇴계도 <天命圖>가 <太極圖>를 祖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5) 그밖에도 圖象의 부분적 쟁점으로서 ‘心圈’, ‘幾’의 문제 등에 대한 해명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天命圖>에서 心圈의 문제이다. 그는 문인 申沃이 方寸說에 따라 氣圈의 밖에 方寸의 형상을 만들어서 心을 方形으로 표시하려는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心合理氣說의 心개념에 근거하여 ‘氣圈(氣) 속의 虛白(理)’을 心圈의 바른 형상이라 지적하였다.<sup>22)</sup> 그 虛白은 “理가 氣 속에 있음을 알면서도, 氣로 하여금 理 속에 섞이지 않게 한 것”으로 밝혔다. 그만큼 <天命圖>에서 心圈은 퇴계자신의 理氣說에 근거한 心개념의 圖象化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뱃속에 가득한 것(滿腔子)이 모두 心’이라 하지만, 그는 心의 樞紐로서 ‘밖은 圓이요, 속은 虛한 心’을 형상화 한다. 그 心圈을 위해서는 氣質로 圓圈을 그리고 그 속의 虛한 곳에 太極을 붙이면, 方寸의 형상에 국한되어 뒤섞이고 막히는 병통이 없을 것으로 본다.<sup>23)</sup> 그만큼 퇴계는 ‘心’을 方形으로 구속하지 않고 太極에 상응하는 圓形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申沃은 “幾는 動하면서도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 有·無의 중간이다.”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善·惡字 아래에 幾字를 놓는 것이 잘못이라 주

22) 《退全》 권38, 24, <答申啓叔(沃)>, “圖之氣圈, 氣也, 其中之虛白, 理也, 只此一團, 合而命之曰心圈.”

23) 같은 곳, “滿腔子皆心也, 而外圓中竅之心, 特其樞紐耳, 故爲心圈, 只當以氣質作圓圈, 而寓太極於中虛之處, 以應滿腔子皆心之意.”



장한 데 대해, 퇴계는 “幾란 動이 微함이니, 吉함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周易·繫辭下) 라는 정의를 내세워 善·惡字의 아래에 幾字를 두어 善幾·惡幾로 일컬을 수 있음을 引證하였다.<sup>24)</sup> 나아가 圖象에서 惡幾를 左·右로 나누고, 그 아래에 七情을 나열하여 썼는데, 어느 한 쪽에 두면 균형을 잃게 되므로 左·右에 갈라 둠으로써 통렬히 다스리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 2) 性理學的 概念의 一致관계

퇴계는 <天命圖>에 나타난 心·性·情·意와 善·惡의 分別 및 四端·七情 등의 성리학적 개념에 대해, 구구절절이 모두 <太極圖>의 圖說에 근본한 것이라 확인한다. 그 대조되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天命圖>	<太極圖說>
天命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心·性(仁義禮智信)	『中庸章句』: 就理氣妙合之中, 獨指無極之理(性)惟人也, 得其秀而最靈 * [靈]--心也, 而性具其中 * [秀]--氣·質
右-質(陰之爲)	形既生矣
左-氣(陽之爲)	神發知矣
情(性發爲情).意(心發	五性感動
爲意善幾·惡幾四端·	善惡分
七情	萬事出焉

이처럼 퇴계는 <天命圖>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太極圖>와 圖說을

24) 申沃의 見解는 權近의 <天人心性合一之圖>에서 ‘意’字 아래 ‘幾’字를 두고, 그 아래에 ‘善·惡’字를 두고 있는 觀點과 일치하며, 퇴계는 ‘幾’字를 ‘意’字 아래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同意했지만, ‘善·惡’ 아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에는 반대한 것이다.

기준으로 삼아 일일이 검토하였으며, 동시에 <天命圖>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太極圖>의 圖說에서 구절마다 그 개념의 일치성을 대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天命圖>에서는 <太極圖>에서 아직 전개시키지 못하였던 性·情의 未發·已發 문제를 《中庸章句》에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太極圖>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퇴계는 한편으로 <天命圖>의 ‘天命’개념을 <太極圖>의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의 구절과 일치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차이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곧 ‘太極’의 명칭은 造化가 드러내는 자연의 지분을 살핀 의사요, ‘天命’의 명칭은 人과 物이 받은 바의 직분이 있는 도리로 대비된다. 여기서 ‘自然의 地分을 살핀다’는 것은 수양(修爲)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요, ‘받은 바의 職分이 있다’는 것은 수양을 하지 않고는 天命을 행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sup>26)</sup> 그것은 ‘太極’이 우주의 조화질서를 내포하는 天의 차원이라면, ‘天命’은 인간과 사물이 품부받은 ‘性’과 이를 실현하는 수양으로서 인간의 차원으로 구별될 수 있다.

┌ 太極 ─ 占造化自然之地分意思 ─ 不當參以修爲之事  
└ 天命 ─ 有人物所受之職分道理 ─ 無修爲而天命不行

퇴계는 太極이 없는 곳이 없듯이, 사람은 사물이 살아가는 日用 사이에 天命의 유행 아닌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존재임을 주목한다. 바로 이 天命을 아는 점에서 사람이 사물보다 귀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사물보다 귀한 근거의 하나로서 “物은 推理할 수 없으나 사람만이 推理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sup>27)</sup>

25) 《退全》 권41, 8, <天命圖說後敘>, “圖之節節, 皆本於周子圖說, 而性情之未發已發, 又豈外於子思之意歟.”

26) 《退全》 권38, 23, <答申啓叔>, “名以太極者, 占造化自然之地分意思, 名以天命者, 有人物所受之職分道理. 占自然地分者, 故不當參以修爲之事... 有所受職分者, 苟無修爲之事, 則天命不行矣.”

### 3) 修養論의 실천 방법의 相應性

퇴계는 수양론의 문제에도 <天命圖>와 정밀하게 대조하여, 수양론을 <天命圖>의 중요한 영역으로 정립시키고 있다. 곧 그는 <天命圖>에서 性·情圈의 중심에 각각 敬을 두고 있는 것은 靜時와 動時에 敬으로 存養·省察의 수양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그는 ‘天命’의 개념에서 賦予(性)를 體라 하고, 修爲(修養)를 用이라 하며, 賦予만 논의하고 修爲가 없으면 體만 있고 用은 없는 것이라 지적하며, 임금이 명령을 내려도 신하가 그 직책을 폐지하는 것에 비유하여, 修爲가 없이는 사람이 사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sup>28)</sup> 그만큼 성리학과 수양론을 서로 다른 학문 영역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요, 性理와 修養이 體用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특히 그는 수양론적 문제 안에서 <太極圖> 뿐만 아니라 《中庸》과의 상응관계를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먼저 性圈의 敬은 ‘敬으로써 靜할 때에 存養하는 것’(敬以存養於靜)이며, 그것은 <太極圖>의 圖說에서 ‘靜을 주장하여 極을 세운다’(主靜立極)는 것이요, 《中庸》에서 ‘戒懼로서 中을 이룬다’(由戒懼致中)는 말이다. 또한 情圈의 敬은 ‘敬으로써 動할 때에 省察하는 것’(敬以省察於動)이며, 그것은 <太極圖>의 圖說에서 ‘定하다’(定之以中正仁義)와 ‘修하다’(修之, 君子之所以吉也)라는 것은 도덕의 표준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中庸》에서 ‘謹獨으로 말미암아 和를 이룬다’(由謹獨致和)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天命圖>에서 ‘惡幾’가 양쪽 옆으로 갈라져 나온 것은 바로 ‘小人들이 어그러뜨려 흉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대조되는 수양론적 개념의 구절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27) 같은 곳, “惟是物不能推, 而人能推耳.”

28) 《退全》 권38, 23, <答申啓叔(沃)>, “若只存賦予而闕修爲, 是有體而無用, 君有命而臣廢職, 何以見人之貴於物乎.”

〈天命圖〉	〈太極圖說〉	〈中庸〉
敬以存養於靜(性圈) 敬以省察於動(情圈) 惡幾(橫出)	主靜立極 定之·修之 小人悖之, 凶	由戒懼致中 由謹獨致和

## V. 한국유학사에서 〈太極圖〉와 〈天命圖〉의 위치

權近의 〈天人心性合一之圖〉(1390)가 출현함으로써, 한국유학사는 성리학의 인식에서 한국적 특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한 단계 비약할 수 있었다. 그 후 조선시대 성리학은 퇴계가 정정한 〈天命新圖〉(1553)가 四端七情 문제에 대한 논쟁의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조선시대 성리학사의 우뚝한 정점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에서 〈天命圖〉는 한국유학사의 관문이요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天命圖〉는 〈天人心性合一之圖〉를 계승하고 있으며, 또한 〈太極圖〉와 《中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太極圖〉와 《中庸》은 주자학의 원천이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에 의해서 〈天命圖〉는 낱낱이 〈太極圖〉에 상응되고 있음이 철저히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太極圖〉와 〈天命圖〉 사이에 관점의 근원적 전환을 명확하게 밝혔다. 바로 이 점에서 퇴계는 주자학의 설계를 계승하고 권위를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太極圖〉와 〈天命圖〉의 사이에 理推와 類例는 같지만, 名義와 界分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太極圖〉는 ‘理·氣의 本原’으로서 우주론의 문제라면, 〈天命圖〉는 ‘人·物의 稟賦’로서 심성론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것은 중국성리학의 근원으로서의 〈太極圖〉가 우주론적 문제인데 비하여, 한국성리학의 근원으로서의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命圖〉가 심성론적 문제였음을 말해 주며, 나아가 한국성

리학의 특성이 심성론에서 출발하고 심성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29)</sup>

따라서 <太極圖>와 <天命圖>는 퇴계의 학문 체계 속에서 두 축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太極圖>는 퇴계의 《聖學十圖》 第1圖로 수록되어 太極·天道의 우주적 근원성을 인식하는 문제로서 위치를 갖는다면, <天命圖>는 《聖學十圖》 안에서는 第6圖인 <心統性情圖>와 같은 구조를 지닌 것으로서, 天命·心性の 심성적 내면성을 인식하는 문제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이다. 太極과 天命, 내지 天道와 心性(人道)의 문제가 퇴계의 학문 체계요, 《聖學十圖》의 기본구조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太極圖>와 <天命圖>가 퇴계의 학문 체계 속에서 나 한국유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광범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쳐 온 비중과 학문적 기준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다.

---

29) 韓國性理學이 心性論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證據로서, 朝鮮時代 性理學의 대표적 쟁점을 들면, ① 16世紀後半 退溪·栗谷을 중심으로 한 ‘四端七情論爭’, ② 18世紀初 韓元震·李柬을 중심으로 ‘人物性同異論爭’, ③ 19世紀末 李恒老 중심의 華西學派를 비롯하여 ‘心主理主氣論爭’의 3大論爭을 들 수 있다. 이 爭點들은 ‘情’→‘性’→‘心’의 문제로서 心性論의 범위에 집중되고 있다.